

with KRTA

방사선사 협보

VOL. 407

SEPTEMBER
2026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생명을 나눈 약속

강성우 방사선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20년 전 약속,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을 잇다.



감동을 전한 이야기

김현정 방사선사

영주자이병원

보건의료인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1주년 기념
‘제4회 방사선사의 날’ 성황리 개최

10

20년 전 약속,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을 잇다.
강성우 방사선사

46

두 번의 국가고시,
하나의 성장
김현정 방사선사

49



표지 이야기

생명을 나눈 약속, 감동을 전한 이야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강성우 방사선사,
영주자인병원 김현정 방사선사

'방사협보' 제호 변경 안내

기존제호

방사협보

변경제호

방사선사 협보

변경목적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협회 공식 소식지로서의 정체성 강화

발행일 2026년 9월 25일(통권 407호)

발행인 박종창(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박성모(건국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이사 박호성(아주대학교병원)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상상크리에이티브

인쇄 동신CNP

Contents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6 발로 뛰는 협회

10 중앙회 소식

21 시·도회 소식

34 전문학회 소식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인스타그램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ISSUE

46 강성우
조혈모세포 기증

49 김현정
보건의료인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53 양한준
AI가 강해질수록, 방사선사는 더 강해져야 한다

55 정봉재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57 김진수
DK메디칼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ESSAY

60 조정훈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병원과 두 바퀴 사이

64 박성모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요리조리 방사선사

66 최남길
故김광철 선생님 영전에 삼가 올립니다

REVIEW

69 박호성
홍콩 학술대회 참관기



We are RT's

71 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자료실 개설

72 팔로우 이벤트

73 웹툰
안전법

방사선사 협보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방사선사 협보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 협보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2회차) 시행 안내

시험일	2026년 11월 29일(일)
원서접수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1일(토)
수험번호 공지	2026년 11월 9일(월)
이의신청	2026년 11월 30일(월) ~ 12월 2일(수)
합격자 발표	2026년 12월 7일(월)

시험장소

수도권(성남)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L보건학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광주보건대학교 여호수아관

응시분야

- | | |
|------------------------|-----------------------|
|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 (9)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
|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 (10) 투시 전문방사선사 |
| (3) 유방 전문방사선사 | (11)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
|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 (12) 치료 전문방사선사 |
|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 (13)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
|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 (14)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
|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 (15)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
|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 (16)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

2026년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2회차)에는 방사선 의학물리사 분야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시험 관련 이의사항은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문의(민원)마당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발로 뛰는 협회	06
중앙회 소식	10
시·도회 소식	21
전문화회 소식	34

2026 June

6월 1일

- 대한방사선사협회 & 디자이너성형외과의원 MOU
- 재무부 업무활동

6월 2일

- 디케이메디칼 후원 업체 미팅

6월 3일

-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6월 4일

- 대의원의 협회 산하 위원회 참여제 시행 관련 업무활동

6월 5일

- 학제단일화 관련 업무활동

6월 8일

-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장 사전 답사

6월 9일

- 교육부 업무활동

6월 11일

- 후원 업체 간담회(필립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업무활동
- 재무부 업무활동
- 후원 업체 간담회(지이헬스케어)

6월 12일

- 제7차 상임이사회의

6월 13일

- 2026년도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워크숍
- 제2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회의

6월 15일

- 복지권익부 & e제너두 복지물(베네카페) 미팅

6월 16일

- 2026년 전문학회장 간담회
- 복지권익부-고센의원 업무협약 관련 미팅

6월 17일

- 교육부 업무활동
- 사업·보험부 업무활동

6월 18일

-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미팅
-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경도관리 측정사업 관련 부산 지역 업무활동
- 제3차 사무국 업무회의
- 대한방사선사협회-법무법인 명륜 법률자문 계약

6월 19일

-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
- 제8차 상임이사회의(서면)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업무활동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경도관리 측정사업 관련 김제 지역 업무활동

6월 20일

-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
-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출제 및 문항정리 워크숍

6월 21일

-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

6월 22일

- 재무부 업무활동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직능단체장 미팅
- 인천관광마이스과 과장 미팅

2026 July

7월 1일

- 언론 기자간담회
-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7월 2일

- 제1차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 제9차 상임이사회의(서면)

7월 4일

- 제23차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7월 5일

- 제23차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학술대회

7월 7일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5차 정기회의
- 총무부 업무활동

7월 8일

- 재무부 업무활동
- 제3차 임시이사회의

7월 9일

- 지이헬스케어 후원업체 미팅

7월 10일

- 제10차 상임이사회의

7월 11일

- 제14회 경상남도 종합학술대회
- 제2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7월 12일

- 제14회 경상남도 종합학술대회





2026 August

7월 13일

- 복지·권익부 & 하나카드 제휴사업팀 업무활동
- 제2차 학술위원회 회의

7월 14일

- 2026년 수도권 대학병원 부서장 간담회
-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

7월 15일

- 제6차 인사위원회 회의

7월 16일

- 회장단 업무활동

7월 17일

- 김민석 前 국무총리 타운홀 미팅

7월 18일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KDTEX 2026 국제학술대회

7월 20일

- 제1차 감독관운영위원회 회의
- 교육부 업무활동

7월 21일

- 2026년 제1차 표준임금가이드라인 회의
-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7월 22일

-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회의

7월 23일

- 로이슨(ROYSON) 업무협약
- 제4차 사무국 업무회의

7월 24일

- 2026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안감사
- 제1차 대의원총회 임원 간담회

7월 25일

- 2026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안감사
- 제239차 정기이사회 회의
- 제4회 방사선사의 날

7월 26일

- 2026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안감사

7월 27일

- 제2차 학제단일화 TFT 회의
- 재무부 업무활동

7월 29일

- 교육부 업무활동

8월 1일

- 제3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회의

8월 4일

- 제2차 표준임금가이드라인 TFT 회의

8월 5일

-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8월 6일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의
- 챗봇 업체(벨루가) 미팅

8월 7일

- 2차 보건 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운영기획회의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상임이사 워크숍
- 제2차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8월 8일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상임이사 워크숍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

8월 9일

-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 제7차 인사위원회 회의

8월 10일

- 김민석 후보와 함께하는 방사선사 정책간담회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고사장 사전답사(영남권)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2차 이사회의

8월 11일

- 대한영상의학회 환자자문단 회의

8월 12일

- 후원 업체 간담회(씨엠메디칼)
- 전자결재시스템(NPAS ONEQ) 업체 미팅

8월 13일

- 제2차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운영위원회의

8월 17일

- 회장단 업무활동

8월 18일

- 환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터뷰
- 재무부 업무활동
- 복지·권익부 & 인권행정부 이호종 행정사 업무활동
- 제23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 사전검수(1차)

8월 19일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고사장 사전답사(호남권)
- 2026년 대한방사선사학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회

8월 20일

-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고사장 사전답사(중부권)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부설기관장 업무활동
- 제23회 1회차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 사전검수(2차)

8월 21일

-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업무활동
- 제11차 상임이사회의

8월 22일

- 2026년 시도회장 워크숍

8월 23일

- 2026년 시도회장 워크숍
- 제23회 제1회차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8월 26일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간담회

8월 27일

-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준비 2차 실무자 회의
- 대한방사선사협회 & e-제너두(주) 베네카페복지물 업무협약(MOU)

8월 28일

- (주)제브 임시주주총회
- 교육부 업무활동

8월 29일

- 2027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강의 동영상 제작 관련 제1차 사전회의

8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및 전국직능대표자회 수석부의장 미팅
- 제3차 보수교육평가위원회 회의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1주년 기념 ‘제4회 방사선사의 날’ 성황리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지난 7월 2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지하 회의실에서 창립 61주년 기념 ‘제4회 방사선사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건강을 비추는 안전한 빛, 우리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방사선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협회의 지난 6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 개회사에서 박종창 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 61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협회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함께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협회는 방사선사의 고유한 전문성과 직역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거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회장, 전문학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진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창립 61주년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연대와 자긍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협회 창립 61주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

상이 상영되었으며, 조남수 제19·20대 회장과 이현용 대의원총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를 통해 보건의로 현장에서 헌신해 온 방사선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61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전문성을 강화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의료현장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며 귀감이 된 회원들에게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회원은 휴일 운전 중 도로 옆 도랑에 빠진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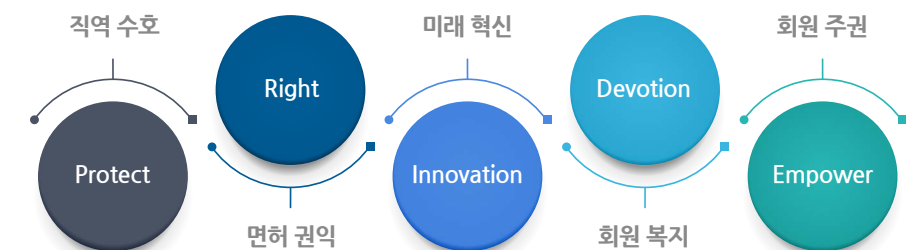
남성을 구조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또한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회원은 한강공원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살려 의료인의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했다.

수상자

- 강릉아산병원 김세훈 회원
- 강동성심병원 신재욱 회원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제26대 집행부의 핵심 가치인 PRIDE를 공식 선포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로 전문직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박종창 회장은 “회원의 삶을 바꾸는 협회, 참여할 이유가 있는 분명한 협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회원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으로 연결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대한민국 방사선사에게 가장 신뢰받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61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

고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긍심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꿈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의료계에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협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대한민국 방사선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 6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건의로 전문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 참석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다낭에서 개최된 ‘제12회 동남아시아 방사선학회 및 제2회 마카오-필리핀-베트남 방사선학회’에 참석하여 각국 및 베트남방사선사협회(VART)와의 교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학회 참석은 아시아 방사선사의 지속전문교육(CPD) 체계 구축, 국가 간 교육 인증 및 전문역량 향상 협력,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20개국 대표가 참석한 ‘Asia-CPD Platform Meeting’을 통해 아시아 방사선사 CPD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 국가들은 각국의 CPD 운영 현황 및 교육 인증제도를 공유하고, 세계방사선사협회(ISRRT)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CPD 프로그램과 공동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가 간 CPD 이수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아시아 협

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어 진행된 ‘VART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영상의학, 방사선 치료, 의료영상기술, 방사선 안전관리, 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각국 전문가들과 향후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베트남방사선사협회(VAR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양 기관은 학술 및 연구 교류 활성화,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제학술대회 및 연수 상호 참여, 학생 및 회원 교류 확대, 공동연구 및 국제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협회는 이번 참석을 통해 아시아 방사선사 CPD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대한방사선사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3박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1회차)' 전국 4개 권역 시행



수도권 신구대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지난 2026년 8월 23일(일),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1회차)'을 전국 4개 권역에서 동시 시행했다.

이번 시험은 수도권(신구대학교), 중부권(건양대학교), 영남권(대구보건대학교), 호남권(광주보건대학교) 총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수도권 299명 ▲중부권 39명 ▲영남권 112명 ▲호남권 35명 등 총 485명의 응시자가 시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96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전체 합격률은 61.03%를 기록했다.

박종창 회장은 신구대학교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박종창 회장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학업



영남권 대구보건대학교

과 노력이 분명 원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빛나는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미래의 전문방사선사로서 펼쳐나



호남권 광주보건대학교



중부권 대전 건양대학교

갈 당당한 행보를 기원한다”며 응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2회차)은 2026년 11월 29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일(목)~10월 31일(토)이다.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1회차) 수석합격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통합)

No	응시부문	성명	근무처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신유진	건국대학교병원
		박재형	원광대학교병원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김윤태	강릉아산병원
3	유방 전문방사선사	이수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최은빈	서울아산병원
		최미소	대한최강내과의원
5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이승희	서울아산병원
6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양태희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7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박은선	연세산부인과의원
8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김리나	이담외과의원
9	투시 전문방사선사	박웅배	인천세종병원
10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김명진	조선대학교병원
11	치료 전문방사선사	박찬서	건국대학교병원
12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왕준호	건국대학교병원
13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박종엽	아주대학교병원
14	방사선 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최성현	동강대학교 방사선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무료측정사업 시행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전관리부입니다.

우리 안전관리부에서는 방사선사 본연의 업무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도관리 측정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점검을 넘어, 장비가 항상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번 방사선사협보에서는 최근 우리 부서가 진행한 현장 시험검사 측정 결과를 공유하며, 본 사업이 현장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회원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관리부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일반촬영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최신 측정 장비를 활용해 타이머, 조사선량 재현성, 조도, 촬영 관전압 및 관전류, 반가층, Collimator, 누설선량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점검 개요 및 우수 관리 사례

A 병원 (2026년 6월 18일 측정): 해당 장비는 모든 검사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훌륭한 관리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조도시험에서 평균 324 Lux를 기록하여 검사 기준치인 100 Lux 이상을 크게 상회했으며, Collimator 오차 역시 0.5%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B 기관 (2026년 6월 18일 측정): 조도 평균 152.25 Lux,



Collimator 오차 1% 등 전 항목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며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나 미세한 설정 변화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정밀 측정을 통해서만 잡아낼 수 있었던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어, 정기적인 정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측정의 필요성: 부적합 사례를 통한 교훈

C 병원 (2026년 6월 19일 측정): 타이머, 관전압, 관전류 등의 필수 시험은 무사히 통과했으나, 조도시험 결과 평균 61.5 Lux로 측정되어 기준치(100 Lux 이상)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Collimator 시험에서도 오차가 2.5%로 나타나 허용 기준인 $\pm 2\%$ 이내를 벗어났습니다.

D 병원 (2026년 6월 18일 측정): 누설선량이나 조도시험 (평균 193 Lux) 등 대부분의 항목은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Collimator 시험에서 오차가 2.5%로 측정되어 해당 항목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향한 안전관리부의 약속

위 현장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기라도 기준치를 벗어난 광조사야

오차나 부적합한 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유발하여 환자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로를 늘리거나, 최적의 진단 영상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 측정사업이 의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3년 주기 법정 정기검사'를 갈음(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의무 검사도 아닌데 왜 굳이 받아야 할까요? 법정 검사 주기인 3년이라는 시간 사이에도 장비의 성능 저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무료 측정사업은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기기 오차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불필요한 피로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즉, 국민과 방사선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이자 든든한 안전망인 것입니다.

안전관리부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꼼꼼하고 전문적인 정도관리 사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올바른 의료 방사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무료측정사업
신청 바로가기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및 4년 학제 단일화 등 6대 과제 추진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지난 7월 1일(수) 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행사 홍보 및 26대 집행부 주요 정책사항 전달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창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추진할 6대 핵심 과제로 ▲의료기사법 개정▲급여 청구 실명제▲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제화▲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방사선사법 단독 제정▲방사선사 인력 배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최우선 과제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꼽았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규정이 방문 영상검사 등 변화된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명확히 개선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국 43개 대학으로 분산된 3·4년제를 4년제로 단일화하고,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인증

원'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면허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급여 청구 실명제'와 고도화된 검사를 위한 '전문방사선사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회장은 오는 하반기 의료기사총연합회와 연대해 국회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는 한편, 오는 10월 송도에서 열리는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 회원 및 가족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가 회원과 가족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한 영상의학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사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방사선 업무 환경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 가족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방사선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통

한 회원 의료복지 증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과 가족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보유한 전국적인 건강검진 인프라와 예방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우대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창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방사선사 회원 및 가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로이슨(ROYSON), 제휴 협약 체결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와 수제화 전문 브랜드 로이슨(ROYSON, 이하 기업)이 양 기관의 동반 성장과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제휴 협약을 지난 2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상호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우대 서비스 제공 대상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속 회원 및 직계가족 ▲협회 소속 임직원 ▲관련 대학 방사선(학)과 재학생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대상자들은 로이슨의 온·오프라인 매장 이용 시 전 품목 20% 특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별 발 모양 측정 및 가족 선택 등 로이슨만의 프리미엄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단위나 지회 단위의 단체 구매 시에는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발 크기를 측정해주는 '출장 실측 서비스'가 제공되어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회원들과 임직원, 그리고 미래의 방사선사인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슨 김현수 대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협회 회원들이 가장 편안한 신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고의 맞춤 서비스와 혜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이제너두, 회원 대상 ‘스마트 복리후생관’ 공동사업 제휴 협약 체결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 이하 협회)와 국내 최초 복지플랫폼 전문기업 이제너두 주식회사(대표이사 송동진, 이하 운영사)가 협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전용 복리후생관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회 및 이제너두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직영쇼핑/여행/문화생활/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혜택의 복지 콘텐츠를 통합한 전용 ‘스마트 복리후생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방사선사 회원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을 선보인 이제너두는 현재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등 약 2,800여 개 고객사와 33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에게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복리후생(복지) 전문기업이다.

아울러 협회 및 이제너두는 대규모 회원의 개인정보가 다루지는 만큼,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등 회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또한 이제너두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물론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ISO 27001)와 개인정보보호(ISO 277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회원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스마트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복리후생관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제너두(주) 송동진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복지 콘텐츠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들에게 기존 고객 동등 이상의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협회 회원들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업무협약의 세부 혜택과 이용 방법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내 복지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



부민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와 건강관리 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는 회원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회는 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검진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회는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특별시회는 2026년 6월 20일(토),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 회의실에서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원사업과 정보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회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회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업무협약

나눔/드림 ·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
서울시 방사선사회 회원 전용 건강검진 패키지



한국의학연구소(KMI)와 건강검진 우대 혜택 마련

이어 2026년 7월 14일(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 회원 건강검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MI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특별시회 회원들이 우대 조건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가족 단위의 예방적 건강관리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평소 놓치기 쉬운 건강 이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회원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에서 복지까지, 회원이 체감하는 혜택 확대

서울특별시회는 건강검진 분야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생활환경을 고려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생활과 복지 전반에 걸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생애주기 맞춤 행복지원 패키지’는 회원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살필 수 있는 회원 복지사업으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회원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검진의 세부 혜택과 이용 방법, 검진 항목은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회 가족 나들이

서울특별시회,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 관람 성황리에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임종천)는 2026년 8월 29일(토) 잠실야구장에서 2026년도 가족 나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회원과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및 사무국 9명, 회원 72명, 동반인 168명 등 총 249명이 참석해 잠실야구장을 가득 메운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가족 나들이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회원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경기 시작과 함께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일상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 및 동반인 168명이 함께 참여해 “회원

과 가족이 함께하는 서울특별시회”라는 의미를 더했으며, 총 249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회원 간 친목은 물론 가족이 방사선사의 역할과 서울특별시회의 활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종천 회장은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힘의 바탕에는 늘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가족 나들이가 회원과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회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워크숍’ 성료

전국 16개 시·도회 임원진 및 중앙회·BRTA 도우미 임원 등 70여 명 참석
송도 그랩디 오션 및 미진축산서 워크숍과 연회 개최... 상생·소통 강화 다짐

지난 8월 22일, 부산 송도 그랩디 오션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 임원진 및 중앙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년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방사선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각 지역 시·도회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을 비롯해 김진의 수석부회장, 신준봉 총무이사, 김병택 재무이사 등 중앙회 핵심 임원진과 전국 시·도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회장단 및 임원진, 그리고 행사 진행을 지원한 BRTA 도우미 임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송도 그랩디 오션에서 진행된 1부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 현안과 방사선사 전문성 향상 방안, 협회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방사선사의 위상 제고와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도회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회와 시·도회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방사선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송도 미진축산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연회를 갖고, 한층 더 친목을 도모하며 사·도



회 간의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각 지역회로 돌아가 회원 중심의 회무를 지속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2026년도 임원 워크숍’ 열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지난 6월 13일(토)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임원진의 역량 강화와 하반기 주요 사업 성공을 위한 ‘2026년도 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될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서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로드맵 발표

워크숍의 첫 세션에서는 각 부서별 상반기 활동 실적 보고와 하반기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각 부서 발표자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 회원 권익 신장과 협회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다채로운 활동들을 공유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보수교육(7월 18일)’ 집중 논의

방사선사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7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보수교육’ 준비 회의가 심도 있게 열렸다.

임원진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온·오프라인 시스템 점검, 회원 편의성 극대화 방안 등 성공적인 교육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

황덕기 인천광역시회 회장은 “상반기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과 7월 18일 보수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신뢰받고 발전하는 인천시회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원 대상 야구 관람 행사 성황리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지난 6월 18일 인천 지역 방사선사 회원들을 위한 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

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경기는 양 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연장 11회까지 이어졌으며,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종료되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져 참석한 회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함께 응원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 권익과 전문성 강화” 인천광역시회, 온라인 보수교육 성료

황덕기 회장, 국내외 학술교류 확대로 다양한 기회 제공 약속
초음파·MRI·투사·CT 등 임상 실무 최신 지견 공유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이하 인천시회)가 지난 7월 18일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최신 의학 지식 공유를 위한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방역 및 공간적 제약을 넘어 더 많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

로 진행됐다. 주말이자 덥고 습한 장마철 날씨 속에서도 관내 방사선사 200여 명이 대거 접속해 뜨거운 학구열을 입증했다.

황덕기 인천시회 제18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황 회장은 “지난 4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공리에 마친 ‘제25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와 6월 일본 후쿠오카와의 ‘한·일 선량 관리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상반기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하반기 회원 화합 등반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라며, 공약 사업들은 철저히 준비해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니 제18대 집행부를 믿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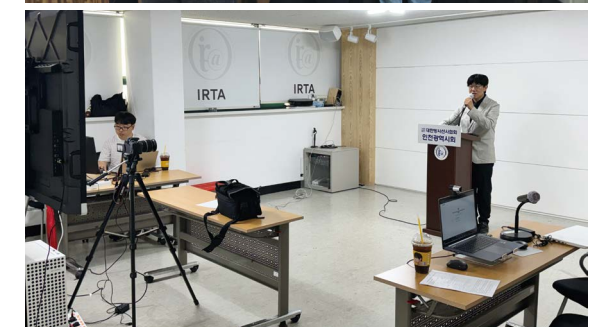
이어서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총 4교시에 걸쳐 4시간 동안 밀도 있게 구성됐다.

- 1교시: 바로병원 문순희 방사선사
 - 주제: 발목초음파 검사 및 증례
 - 내용: 다양한 임상 증례 바탕의 정확한 초음파 검사 기법 제시
- 2교시: 경희의료원 김도영 방사선사
 - 주제: Pulse Sequence & Parameters
 - 내용: MRI 핵심 원리와 파라미터 조절을 통한 영상 질 향상 노하우 공유

- 3교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박범수 방사선사
 - 주제: 임상투시검사의 이해와 영상해부학
 - 내용: 투시검사 시 필수 해부학적 지표 및 안전한 검사 프로세스 정리
- 4교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기봉 방사선사
 - 주제: CT 화질 평가와 검사 중 참고사항
 - 내용: 환자 안전 확보 및 최상 영상 구현을 위한 실무적 화질 평가 기준 상세 설명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우수한 강사진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와 팁을 전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안하면서도 집중도 높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방사선사의 직무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회 2026년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남도회(회장 김미영)는 지난 7월 4일(토) 실시한 2026년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회원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최신 의료기술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한 최신 의료기술 동향을 함께 다루어 회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교육 운영 과정에서는 충청남도회 임원들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교육 접속 안내, 수강 중 발생하는 문의와 이수 확인까지 회원 한 분 한 분이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하게 지원하였으며, 교육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등록 회원이 불편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김미영 회장은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이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교육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강사진과 민원 대응팀,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26년 제3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학술로 소통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가 주관한 「2026년 제3회 전라남도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가 2026년 6월 20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최현철 전라남도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라남도회 회원과 전남지역 2개 대학 방사선(학)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학술 행사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연 발표와 포스터 발표, 특강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폐회식까지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회원 구연 발표 4편, 재학생 구연 발표 6편, 포스터 발표 8편, 특강 3강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여 명의 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한방사선사협회 본부

및 전국 시·도회 임원들도 참석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김진의 부회장, 문철홍 부회장, 이준석 감사, 조희근 감사와 함께 인천광역시회 황덕기 회장, 대구광역시회 정수용 부회장,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 경상남도회 임성은 회장, 전북특별자치도회 정병화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회 고은남 회장, 김동관 부회장, 충청남도회 김미영 회장, 경기도회 박호영 회장, 경상돈 전임회장, 광주광역시회 정명진 회장, 최재성 부회장 등이 참석해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냈다.

학술대회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회원과 재학생, 포스터 발표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상이 진행됐다.

● 회원 부문

- 우수 구연상 : 박동성 회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소진 회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승규 회원(광양보건대학교), 박진수 회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재학생 부문

- 최우수 구연상 : 전재훈 학생 외 5명(광주보건대학교)
- 우수 구연상 : 백진아 학생 외 5명(광주보건대학교), 정지원 학생 외 3명(광주보건대학교)

● 포스터 부문

- 우수 포스터상 : 김나현 학생 외 5명(광주보건대학교), 강현 학생 외 5명(광주보건대학교), 김서현 학생 외 11명(동신대학교)

● 기타 시상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 : 서채련 회원(무안종합병원)
- 전라남도회장 표창 : 서동진 회원(순천의료원)

폐회식에서 최현철 전라남도회장은 '학술로 소통하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학문적 성장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 분야의 최신 학술 정보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전라남도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단결된 조직을 만들어가고,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사명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한 모든 회원과 행사 준비 및 운영에 헌신한 임원진, 의전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라남도 방사선사의 학술 발전과 회원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학술 정보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전라남도회의 지속적인 학술 활동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방사선사의 역량 강화와 학술 문화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성장하는 경상북도회, 내일을 향한 도약’...

2026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6차 학술대회 성료



행사명	2026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6차 학술대회
일시	2026.06.28(일) 11:00~18:00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슬로건	함께 성장하는 경상북도회, 내일을 향한 도약
참석 규모	회원 및 학생 등 600여 명

서로 운영되었으며 학술대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했다.

행사 개요와 현장 분위기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학술 참여 확대, 학생 회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현장에는 경상북도회 회원은 물론 전국 각지의 시·도회 임원과 학생들이 일찍부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행사장 곳곳에서는 최신 의료기술과 임상 현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행사와 지역 개최의 의미를 함께 살린 자리로 평가되며,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경상북도회의 학술적 역량과 조직 운영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는 2026년 6월 28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상북도회, 내일을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회원 및 방사선학과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해 학술교류와 조직 결속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학술행사는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최신의료기술 심포지엄, 개회식과 회원 표창, 회원 및 학생 논문 발표, 특별강연, 슬로건 및 논문 시상, 폐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순



김상희 경상북도회장 환영사

개회식 환영사에서 김상희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로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술대회가 단순한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지역 회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 역량을 준비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술 참여와 연구 활동이 곧 지역 방사선사 직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상북도회가 회원 간 협력과 연대,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더 넓은 학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학생 회원들에게는 임상과 연구를 잇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길 당부하며, 경상북도회가 현장과 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종창 협회장 및 권기창 안동시장 축사

이어진 축사에서 박종창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학술대회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직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더불어 방사선사의 업무가 임상 실무를 넘어 연구와 교육, 정책과제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도·회가 주도하는 학술행사가 회원들의 실제 업무역량을 높이고 협회 전체의 학문적 기반을 넓히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경상북도회의 지속적인 학술 실천에 기대를 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를 통해 안동에서 이번 학술대회

가 개최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지역 보건의로 발전과 학술교류의 확대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권기창 시장은 지역사회와 보건의로 전문인력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행사는 도시의 공공의로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가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조명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에서의 개최는 지역과 학술, 직역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초청강연·심포지엄·특별강연과 논문발표 15편의 학술 성과

이번 학술대회는 오전 초청강연부터 폐회에 이르기까지 학술 흐름이 유기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초청강연과 최신 의로기술 심포지엄에서는 임상 현장과 산업 동향, 최신 기술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신 의로기술의 임상 도입 가능성과 실무 활용성을 짚는 발표들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은 현장 실무자와 학생 회원 모두에게 학문적 자극을 제공하며 학술대회의 깊이를 더했다.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회원 및 학생 발표를 포함한 총 15편의 연구가 소개됐다. 각 발표는 진단영상, 방사선치료, 초음파, 방사선방호, 영상 평가와 인공지능 적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 방사선사들의 연구 관심 영역이 임상 실무에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학생 발표는 미래 인재 양성의 가능성을, 회원 발표는 현장 경험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을 드러냈으며, 학술위원장 총평까지 이어지는 운영 체계는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술대회 전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회원 표창과 슬로건·논문 시상 의미

개회식 중 진행된 회원 표창은 경상북도회와 지역 보건의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였다. 경상북도지사 표창, 국회의원 표창,



안동시장 표창, 경상북도회장상, 대한방사선사협회장상, 공로패 전달 등 다양한 시상은 개인의 수상에 머물지 않고 직역 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역사회와 직역 간 연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폐회 전 진행된 슬로건 및 논문 시상 역시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 슬로건 공모 시상은 ‘함께 성장하는 경상북도회, 내일을 향한 도약’이라는 대회 메시지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 의지로 연결하는 장이 되었으며, 학생·회원 논문 시상은 학술적 열정과 연구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학생 부문과 회원 부문 우수·최우수 논문상 수상작은 임상과 교육, 연구를 연결하는 방사선사의 폭넓은 역량을 보여줬고, 이는 경상북도회가 지향하는 학술문화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맺음말

2026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6차 학술대회는 학술 프로그램의 충실성, 회원 참여의 폭,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고른 성과를 남긴 행사였다. 초청 강연과 심포지엄, 특별강연, 논문 발표와 시상, 회원 표창과 폐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면서 경상북도회의 학술 역량과 조직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상북도회의 지속적인 학술 활동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최우수논문상**
• 이윤경(포항성모병원), 김원준(대구가톨릭대학교)
- **우수논문상**
• 강설희(차의과대학대학부속병원 구미차병원), 최익창(한국원자력안전공단)
- **최우수슬로건상**
• 이수지(안동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장상**
• 이태봉(구미천사요양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장상**
• 이동환(안동성소병원), 서유창(에스포항병원), 오현주(상주직업자병원), 조성원(김천의료원), 강설희(차의과대학부속병원 구미차병원), 김동오(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권순범(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 **공로상**
• 윤병섭(예천군보건소), 김부찬(영양군보건소)
- **경상북도지사표창**
• 김영운(김천의료원), 임시왕(좋은선린병원)
- **안동시장표창**
• 김현수(안동성소병원), 김영일(안동병원)
- **국회의원상**
• 김중우(안동병원)

대한방사선과학회(KSRS) 온라인 웨비나 성료

방사선학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Artificial Intelligence in Radiography Education)

홍콩이공대학교 헬렌 로(LAW Ka Wai Helen) 교수 초청 강연

의료 교육의 혁신, AI 활용, VR 실습실 구축 사례 등 미래 교육 청사진 제시

소속 제한 및 등록비 없는 개방형 교육으로 학문적 교류 확산



대한방사선과학회(KSRS)는 방사선학 교육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과 확산을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방사선학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접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Zoom)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국 방사선학과 교수 및 학생, 관련 대학원생 등이 사전 등록하여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소속 제한이나 별도의 등록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연사로는 지난 15년간 방사선 검사 분야 학생들을 지도해 온 홍콩이공대학교 보건기술정보학과 부교수이자 부학과장이며, 세계방사선사협회(ISRRT) 국제학술네트워크(IAN)

교육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헬렌 로(Prof. LAW Ka Wai Helen) 교수가 초청되었다.

헬렌 로 교수의 강연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AI 생성형 모델과 대규모 언어 플랫폼을 통한 ‘의료 교육의 혁신’을 시작으로, 인간과 AI의 협업 및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올바른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맞춤형 튜터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사 부족 및 실습 기회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 극복’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추적 카메라, 컴퓨터 비전, 실시간 분석 기능 등을 실제 탑재하여 운영 중인 홍콩이공대학교의 ‘AI 기반 실습실’ 구축 사례가 공유된 세션에서는 미래 방사선학 교육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며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며,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시 고려사항, AI 기반 실습실 운영 사례, 한국 대학과의 국제 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질문이 오고 갔다.

대한방사선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웨비나는 소속이나 등록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방사선학 교육의 지식 공유와 패러다임 확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며, “앞으로도 방사선 과학 및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갈 다양한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Hong Kong Radiographers and Radiation Therapists Conference (HKRRTC) 2026 cum 13th Asia Radiotherapy Symposium (ARTS)에 참석

“글로벌 방사선치료 기술의 미래를 보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홍콩,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8개국의 방사선치료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3회 아시아 방사선치료 심포지엄(13th Asia Radiotherapy Symposium, 이하 ARTS)’이 개최되었다.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일규 대한방사선치료학회장을 비롯한 4명의 임원진은 아시아 및 글로벌 치료 기술의 최전선을 직접 목격하고 한국 방사선치료 기술의 위상을 확인하겠다는 열망과 책임감을 안고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첫날인 26일 Welcome dinner에서는 ISRRT(국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인 Chek Wee Tan을 비롯한 임원진, 각국 협회장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방사선사들과 깊이 소통해보니 언어와 근무 환경은 달랐지만, 환자 안전을 향한 고민과 방사선사의 권익 신장,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열정만큼은 모두가 같았다. 각국의 제도나 업무 범위, 향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고, 전 세계 동료들과 나눈 대화는 앞으로의 방사선사 생활에 원동력이 될 만큼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

27일은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날이었으며, 이번 치료기술 세션에서는 딥러닝, 인공지능(AI), 차세대 영상 장비를 접목한 혁신적인 연구들이 대거 발표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중에서도 교모세포종(Glioblastoma)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해 MRI 기반의 라디오믹스(Radiomics) 데이터와 멀티오믹스 모델을 비교 분석한 연구(Multi-omics integration for prognostication in glioblastoma: a comparative analysis of MRI based radiomics and multi-omics model)는 정밀 의료 시대에 방사선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차세대 CT로 주목받는 초고해상도 광자계수 CT 환경에서 딥러닝 기반의 자동 윤곽 추출(Contouring)과 수동 윤곽 추출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한 연구(Quantitative assessment of ultra-high-resolution photon counting CT on deep learning & manual contouring) 등 최신 장비와 AI 기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다룬 심도 있는 발표들이 이어졌는데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상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장이었다.

학회장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도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치료 솔루션 기업인 '파프리카랩(Paprika Lab)'이 부스에 직접 참여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있었고,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의 부스를 찾아 관심을 보이고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방사선치료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모든 학술 세션이 마무리된 후에는 ARTS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Board Meeting(이사회)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방사선치료학회는 아시아 각국의 학회장 및 대표단에게 한국의 정성이 담긴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다진 끈끈한 유대감은 향후 아시아 방사선치료 분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회 성공적인 연속성을 위한 내년도 ARTS 개최국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각국 대표단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차기 개최국이 일본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아시아 방사선치료의 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며 이날의 공식 일정을 뜻깊게 마무리했다.

우리 학회 임원진 역시 이러한 학술적·외교적 성과들을

면밀히 챙기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 속에서 한국 방사선치료 기술의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일규 치료학회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확인한 아시아 각국의 열정과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국내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방사선치료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홍콩에서의 3일은 끝이 났지만, 그곳에서 얻은 강렬한 영감과 네트워크는 앞으로 대한방사선치료학회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는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KSNMT) 영상발전심포지엄의 성공 개최 및 '한일 교류 20주년'을 향한 굳건한 파트너십 구축



현장 중심 실무 교류의 장, '영상발전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지난 2026년 6월 20일(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승강강의실에서 대한핵의학기술학회가 주관하는 '영상발전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론 중심의 학술대회를 넘어,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 학술 부문에서는 학계를 선도하는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이재성 교수는 'Advances in NM imaging technology'를 통해 최신 영상 트렌드와 기술적 혁신을 제언했으며, 동남보건대 김정수 교수는 'Solvay Conference & Nuclear Medicine'을 통해 핵의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임상 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

낸 두 교수의 특강은 이론과 임상을 아우르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업무지식공유 세션'은 실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팁을 공유하는 세션으로 참가자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며 열띤 소통을 펼쳤다.

아울러 GE 헬스케어를 비롯한 파트너사들이 대거 참여한 부스존에서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되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학술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120명의 학회 회원 및 파트너사 관계자, 그리고 미래의 핵의학 전문가를 꿈꾸는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해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18년 우정의 결실, 일본 큐슈 지회 학술대회 참가 및 성과

국내 심포지엄의 열기는 곧바로 일본 현지로 이어졌다. 2026년 7월 4일,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18년 동안 굳건한 학술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일본핵의학기술학회(JSNMT) 큐슈지회의 '제40회 사가 학술대회'(일본 사가현 개최)에 공식 참석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훈희 회장을 필두로 홍건철 총무이사, 박인석 대외협력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진이 동행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였다. 국제교류세션에서는 대한핵의학기술학회 길상형 부회장과 전기웅 회원이 발표자로 나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해 현지 회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일본 큐슈 지회 측 발표자인 고토 쇼타(Gotou Shota) 선생은 한일 양국의 화합과 환영의 메시지를 담

아 태극기를 형상화한 발표 슬라이드를 선보여 현장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식 학술발표가 끝난 후 양국 대표단은 회의를 갖고, 오는 2028년에 맞이할 한일 교류 20주년 기념 공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학술대회 폐막 이후 진행된 '정보교환회'에서는 양국 회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임상 노하우를 나누고 우정을 다지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박훈희 회장은 "이번 영상발전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들의 실무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본 큐슈지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다가오는 2028년 한일 교류 20주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국 핵의학 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고 포부를 밝혔다.

2026년 'MRI 입문강좌' 개최

물리부터 임상까지 한눈에 배우는 MRI 입문교육
회원 중심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선보여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2026년 MRI 입문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MRI 검사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이 자기공명영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방법과 임상적 활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MRI의 기본 물리부터 각 부위별 임상검사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해, 입문자들이 실제 검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물리와 임상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리
 - 이완 및 대조도 (서울대학교병원 김현수)
 - 자기공명신호의 영상화 (서울대학교병원 강승모)
 - 펄스시퀀스 및 파라미터 (서울아산병원 이태현)
 - 확산강조영상, 관류강조영상, MRA (이대서울병원 김동준)
 - 인공물 (서울성모병원 김형선)
- 임상
 - 뇌 및 두경부 MRI 검사 (건국대병원 강성일)
 - 척추 및 근골격 MRI 검사 (고대구로병원 유은수)
 - 심장 MRI 검사 (삼성서울병원 김이슬)
 - 복부 MRI 검사 (서울성모병원 오경주)
 - 유방 MRI 검사 (고대안암병원 장지환)

특히 이번 강좌는 MRI 입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강의에 앞서 MRI 물리와 임상 분야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받아 교육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26년 MRI 입문강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양선욱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교육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자리로, MRI의 기초 물리부터 임상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공명기술 분야의 발전과 회원 간 전문지식 공유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2026년 임원 워크숍 개최

AI 기반 디지털의료영상 교육 강화와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2026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학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의제는 2026년 추계학술대회 준비, 학회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 보수교육 운영 및 필수 오프라인 교육 확대 방안, AI 기반 디지털의료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 회원 확대 및 학회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다루었다.

워크숍 첫째 날인 8월 28일에는 참석 임원 간 교류를 시작으로 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의료영상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AI 기반 디지털의료영상 교육 및 학회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질적 개선과 필수 오프라인 교육 확대에 대비한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의료영상 기술과 AI를 접목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학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원별 업무를 보다 세분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학회 업무 추진 세분화 및 임무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와 임명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둘째 날인 8월 29일에는 2027년 학회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전략회의와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회원 참여 확대와 학회 활성화, 학술대회 및 연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학술·교육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발전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 임원들은 향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가 전통적인 의료영상 분야뿐 아니라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2026년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술 프로그램과 세션 운영, 회원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학술·교육·AI·임상'을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학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의료영상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사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입문강좌·춘계학술대회 등 주요 행사 성료

2026년 상반기 CT학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교육·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의원 정기총회, CT 입문강좌, 춘계학술대회, 조영제 안전관리 연수강좌 등 네 차례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 10대 새로운 집행부 출범, 정기총회 때 회칙 변경

대한CT영상기술학회는 1월 31일(토) 충청북도 C&V센터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제9대 김정훈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원진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어 감사보고와 전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향후 학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학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입문자에게 다가가는 성공적인 CT 입문강좌 개최

CT 입문강좌는 CT를 처음 접하는 회원과 기초를 재정비하려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교시 CT 기초이론을 시작으로 2교시 CT 화질과 정도관리, 3교시 CT 선량의 이해, 마지막 4교시 CT Basic Anatomy & 임상 적용까지 기초 이론, 영상 획득 원리, 검사 프로토콜, 방사선 안전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강좌는 CT 검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사진의 생생한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CT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향상시키는 뜻깊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



제27회 대한CT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주에서 새로운 vision을 제시하다

4월 25일(토) 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 C에서 개최된 제27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Pride of KCI, Passion for Vis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의 우수한 논문 발표와 정책 연구과제 발표를 비롯해 생형형 시와 연구 윤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 등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영상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활발한 질의 응답과 학술적 토론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의료영상기술의 발전과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학술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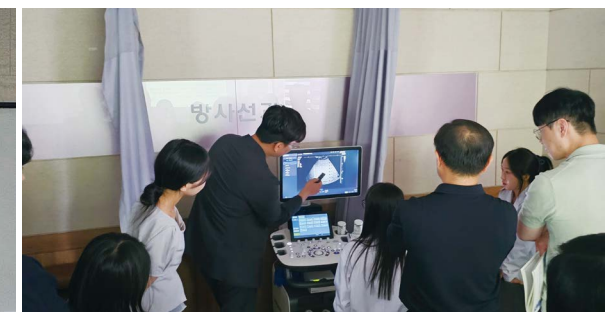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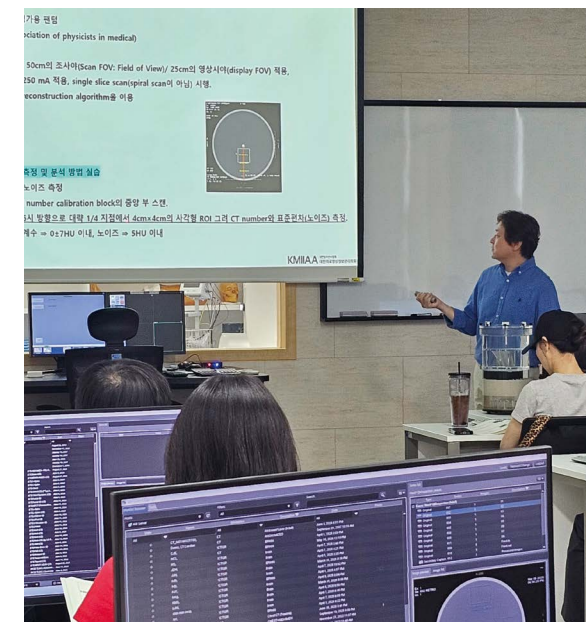
조영제 최신 가이드라인 공유와 전문성 강화의 시간

6월 27일(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A관 5층 메디힐홀에서는 조영제 안전관리 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조영제 연수강좌에서는 CT 조영제의 국내·외 최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조영제의 특성과 실무 적용, 조영제 부작용의 실제 사례 및 대응 전략, 조영제 사용의 실제와 최신 이슈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영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전문가 패널토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영제 사용과 환자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는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네 차례의 주요 행사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2026년 제2·3차 보수교육 성료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 실무연수’ 주제로 이론·실습 병행 교육 진행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는 회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2026년도 제2차 및 제3차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7월 4일(토) 동남보건대학교 동남관 방사선학과에서 2차 교육이, 7월 11일(토) 동강대학교 보건관에서 3차 교육이 각각 개최됐다.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 실무연수’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회차별로 약 5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특히 단순한 온라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이론 및 실습 병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현직 교수와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실습에 직접 참여한 회원들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하며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과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영상정보관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4회 의료인공지능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회장 박양목)는 지난 7월 25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제4회 의료인공지능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영상의학 분야의 미래를 조망하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을 포함해 총 358명이 등록하는 등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보조 시스템과 의료영상 분야의 최신 AI 기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이 이어져 AI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의 동향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학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양목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사선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회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ISSUE

강성우 46
조혈모세포 기증

김현정 49
보건의료인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양한준 53
AI가 강해질수록, 방사선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정봉재 55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김진수 57
DK메디칼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ESSAY

조정훈 60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병원과 두 바퀴 사이

박성모 64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요리조리 방사선사

최남길 66
故김광철 선생님 영전에 삼가 올립니다

REVIEW

박호성 69
홍콩 학술대회 참관기

20년 만의 약속

강성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강성우님! 조혈모세포 기증해줄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지난 2달간의 꿈같았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학부 시절, 장차 보건의료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의 숭고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다짐하고 시작한 일이 헌혈 100회와 조혈모세포기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헌혈 80여 회를 달성했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올해 6월 중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것이었건만 최근 '조혈모기증 만 40세까지'라는 홍보물을 얼핏 본 터라 만료 안내 및 인사말이겠거니 하고는 책상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핸드폰에 낯선 번호와 함께 발신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보자마자 설마?!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일치하는 급성백혈병 환자분이 계신데 조혈모세포 기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워낙 오래전에 기증 등록 하신 거라.."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하던 순간이라 담당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2달여간 유전자 정밀검사, 사전 건강검진, 양팔 혈관 확인, 음식조절 등을 시행하였고 기증 직전 4일간 조혈모세포 증폭/축진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 흔히들 알고 있는 골수기증은 많은 오해가 쌓여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척추에서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옛날에는 뼈에서 직접 채취하였지만 그마저도 척추가 아닌 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이 크고 최근에는 말초혈관채취법이 도입되어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분헌혈을 하듯이 피를 뽑아서 조혈모세포만 따로 걸러내어 모으는 방식이라 부작용도 없고 거부감도 적어 말초혈관채취법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증폭시켜서 말초혈관으로 모으려면 4일간 축진제를 맞아야 하는데 몸살 기운과 전신 뼈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매일 병마와 싸우는 환자분을 생각

하며 타이레놀로 버텼습니다.

이윽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내 헌혈실로 이동하여 양팔에 라인을 잡고 혈액성분채집기와 연결,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면 움짱달짝도 못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합니다. 성분헌혈 경험이 있는 분이면 알겠지만 팔을 움직이면 캐놀라 끝이 혈관 벽에 닿아 혈액이 안 나오고 기계 알람이 울립니다.

채집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스마트폰이라도 보려고 살짝 움직였더니만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에 포기..

학생 때 배웠던 해부학적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다 보니 등허리가 배겼지만 이 또한 환자를 생각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더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간엔 용변이 마려울 경우 침상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 저녁부터 물 포함 자체 금식했고 다행히도 걱정했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8시에 시작한 채집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 14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환자분께 필요한 350cc 정도의 조혈모세포는 바로 이식하기 위해 컵으로 보내졌고 채집기에 남아있는 혈액은 도로 제 몸으로 보냈습니다. 양팔의 관을 제거하고 6시간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니 기증에 대한 송고한 마음, 환자분을 향한 위로와 응원보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원초적 욕구가 앞선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혹 이식과정에서 조혈모세포가 부족하면 2차 채집을 해야 하기에 병실로 돌아가 쉬면서 대기하였고 다행히 충분하다는 연락을 받고 2달여간의 조혈모세포 기증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급성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이식받은 날을 제2의 생일이라고 할 정도로 뜻깊은 날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증등록자는 40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수만분의 1의 확률로 매칭이 되더라도 기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연간 500건이 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기증 의사를 밝혔다가 막판에 거부하는 사례가 연 1,400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도 철회는 기증받을 환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일인 것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약속받고 일정이 잡히면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받기 위해 무균실에서 지내며 고용량의 항암제와 방사선치료로 몸속의 백혈구 수치를 0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 철회하면 환자는 100%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기증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

되고 학교나 직장에서 맘 편히 시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출석 인정 및 공가 처리 등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연간 6~7천 명에 달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더 나아가 새 삶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기증절차 매 순간 함께해주셨던 조혈모세포은행 코디네이터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신 환자분의 완쾌와 오랜 시간 곁에서 애쓰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할머니께..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기증 서약을 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 삶은 때로는 지극하고 무모한 양산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에게도 과연 그런 뜻깊은 날이 올까?'

막연히 생각만 하던 어느 날,

어머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주 작은 무언가

저에게는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더 뜨겁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싸움이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놓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평화로운 양산을 돌아가

남편의 다정한 아내로, 자식들의 든든한 어머니로,

그리고 손주들의 따뜻한 할머니로 오래오래 곁을 지켜주세요.

떠났던 등불처럼 환하게 빛날 그날을 먼 곳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6년 8월 어느 날, 서울에서..

Part 1. 두 번의 국가고시, 하나의 성장

영양사였던 내가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선택한 이유



김현정
영주자인병원

나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영양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며 보수와 조직 관리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꼈다. 특히 관리자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조리 인력을 이끌어야 하는 구조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선배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력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지만, 그때가 오기만 기다리며 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새로운 진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다시 방사선학과에 입학했다.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경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직종이라는 점이었다. 진로와 근무 환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성 방사선사로서 일과 삶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했다.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이유는, 방사선사가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기사 직종이라는 점이었다. 방사선사는 명확한 응시 자격과 수행 직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미 영양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나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 직업은 큰 신뢰감을 주었다. 관련 학과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제도적 전문성은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든든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면허 직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방사선학과 재학 중 대학병원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이미 영양사 면허가 있는데 왜 또 국가시험을 보려고 하나요?”

하지만 나는 안정과 성장의 갈림길에서 성장을 선택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삶은 계속된다. 국가고시를 통과해 전문 면허를 하나 더 갖는 일은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다. 국가고시는 단순히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관문이 아니었다. 목표를 정하고 오랜 시간 공부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시험을 통과한 경험'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달라진 경험'을 쓰고 있다. 낮은 시기에 다시 학생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업에 대한 격정도 있었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고민한 순간도 많았다. 그럼에도 주변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침내 방사선사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두 번의 국가고시는 나에게 두 개의 면허만을 남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헤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겼다.



Part 2. 방사선사 국가고시 공부 방법

공부에 자신이 없었던 수험생의 현실적인 공부법

1. 국가고시 스터디에 참여하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스터디에 참여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평소 공부 습관이 없거나 혼자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스터디에 참여하기를 추천한다. 마땅한 스터디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도 좋고, 학교에서 스터디원을 모집한다면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다. 개강 무렵부터 국가고시 공부를 시작해도 약 4개월 동안 준비해야 하는 긴 마라톤이다. 혼자 공부하면 중간에 지치거나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다. 반면 스터디에 참여하면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공부량을 보며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의 경우, 평일 오전부터 스터디 장소에서 공부했고, 저녁에는 수업에 참여한 뒤 다시 자습하고 귀가했다. 약 4개월 동안 이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장소에 나가 꾸준히 앉아 있는 일이었다.

2. 매주 모의고사 응시하기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매주 빠짐없이 응시했다. 주로 아카데미아, 우림, 에듀팩토리 모의고사를 활용했다. 방사선사 국가고시 모의고사는 실제 국가시험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의고사 점수가 낮다고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모의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왔다면 실제 국가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식적인 환산 기준은 아니지만, 내 경험상 모의고사 1-2교시 총점이 약 110개, 3교시가 25개 이상이라면 실제 국가시험에서는 각각 약 150개와 38개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응시 당시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 기준은 1-2교시 총합 120개 이상,

3교시 30개 이상이었다. 출판사별 모의고사의 특징도 조금씩 달랐다.

아카데미아 난이도와 문제의 질이 비교적 적절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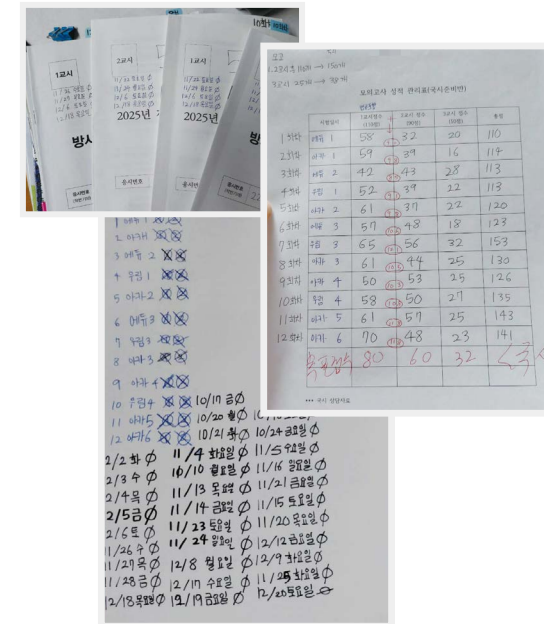
우림·에듀팩토리 난도가 높고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은 편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점수 자체가 아니라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합격권에 들지 못했더라도 실제 국가시험에서는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나 역시 마지막 모의고사 3교시에서 23개를 맞았지만, 실제 국가시험에서는 38개를 맞았다. 그러니 모의고사 한 번의 결과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3. 오답노트를 만들고 반복해서 읽기

나에게 국가고시 공부의 핵심은 오답노트였다. 오답노트에는 문제와 정답을 적고, 가능하다면 정답과 관련된 이론까지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약한 과목은 틀린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교재에서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준비 초반부터 이렇게 정리해두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훨씬 수월해진다. 기초가 부족하고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 오답노트를 만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와 정답만이라도 적어두자. 완벽하게 정리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문제와 답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편이 낫다. 나 역시 처음에는 오답노트 작성을 미뤘다. 하지만 오답노트를 만들고 반복해서 읽기 시작한 뒤 모의고사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 오답노트는 내가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주는 도구다. 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오답노트를 최소 10번 이상 읽었다. 읽은 날짜를 오답노



트에 기록해 반복 횟수를 확인했다. 오답노트가 지루해질 때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시 읽었다.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맞힌 문제도 가볍게 읽었다. 한 번 맞힌 문제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지 표지에 읽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4. 빈칸을 만들어 핵심 키워드 연상하기

교재와 학습 자료를 PDF로 만든 뒤 태블릿에 넣고, 중요한 키워드를 가려가며 공부했다. 1단계에서는 큰 제목을 가리고 전체 개념을 떠올렸다. 2단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를 가린 뒤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시험장에서는 큰 개념은 기억나더라도 정확한 수치나 세부 조건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양영덩뻥능선’까지는 기억나지만 ‘양영덩뻥능선에서 위쪽으로 5~7cm’라는 세부 수치는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면 단순히 내용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머릿속에서 정답을 직접 꺼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빈칸 공부법 1단계

큰 제목 중심

제목: ()

- IR 중상: 양영덩뻥능선 높이에서 위쪽으로 5~7cm
- 날숨 후 멈춘 상태
- Iliac crest 높이에서 위쪽으로 5~7cm, 수직 입사
- 반드시 가로막 포함

빈칸의 답: Abdomen AP·PA, Erect 자세

빈칸 공부법 2단계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 중심

제목: (①)

- IR 중상: (②) 높이에서 위쪽으로 5~7cm
- (③) 후 멈춘 상태
- Iliac crest 높이에서 위쪽으로 5~7cm, 수직 입사
- 반드시 가로막 포함

빈칸의 답: ① Abdomen AP·PA, Erect 자세

② 양영덩뻥능선

③ 날숨

5. 문항 수가 많은 과목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쉽게 지칠 수 있다. 문항 수가 많은 과목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모의고사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고, 국가시험 합격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 응시 당시 출제 비중을 기준으로 내가 추천하는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문항 수가 많은 과목 중 자신에게 잘 맞는 과목을 먼저 확실하게 잡으면 점수 상승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점수가 오르는 경험은 긴 수험 기간을 버티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

1. 핵의학: 2교시 15문제, 3교시 7문제
2. 일반촬영: 1교시 19문제, 3교시 8문제
3. 방사선치료학: 2교시 15문제, 3교시 7문제
4. 초음파: 2교시 11문제, 3교시 6문제

6. 준비 초반부터 전년도 국시원 기출문제에 집착하지 않기

모의고사와 국시원 기출문제는 모두 중요하다. 다만 국가 시험 준비를 막 시작한 시기부터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이론과 문제 풀이 경험이 쌓인 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기출문제를 아껴두었다가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풀어보며 합격권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했다. 국시원 기출문제와 출판사 모의고사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크다. 기출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풀렸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려운 모의고사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 기출문제는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로, 모의고사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도구로 활용하자.

7. 후배들에게 전하는 방사선사 국가고시 암기법

MRI 자기공명학

SNR 증가와 관련된 항목 중 반비례 관계를 기억할 때 사용했다.

• T(E): '이' • (M)atrix: '명' • (B)andwidth: '박'

'이·명·박' 세 글자를 묶어서 TE, Matrix, Bandwidth를 연상했다.

투시조영

- 누공검사: “이 셋집이 누구고?”에서 ‘누공’ 연상
 - 누낭조영검사: “누나, 눈물 흘리지 마”에서 ‘누낭’과 눈물길 연상
- 누공검사와 누낭조영검사는 서로 다른 검사지만, 문제의 보기에 섞여 나오면 헷갈리기 쉬우므로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 암기했다.

- | | |
|----------------|----------------|
| • L-H-하 | • R-S-상 |
| * LPO 자세 | * RPO 자세 |
| * Hampton sign | * Schatzki |
| * 하부, 모패임, 날문 | * 상부, 위바닥, 들문부 |

일반촬영

- Mortise 촬영법 15~20도
→ “몰티스 초콜릿 1,520원”
- Rosenberg법 25도·20도
→ “장미 2,520원”
- Stryker notch법

→ 스트라이크와 볼링 자세를 연상해 팔 각도 10도, 가쪽뼈 결손, 위 팔뼈머리 10도를 함께 기억

- 수근관 ~~Gaynor-Hart~~법 25~30도

→ “게이너는 2530”

- Broden법

→ “네 명의 브로맨스”를 떠올리며 10도·20도·30도·40도를 순서대로 기억

- 노·콩·자·손

* (노)뼈 굴곡 → (콩)알뼈 관찰 → 자뼈 쪽 열림

* (자)뼈 굴곡 → (손)배뼈 관찰 → 노뼈 쪽 열림

- 인·발·아·머

* (인)렛 → (발) 방향 30도

* (아)웃렛 → (머)리 방향 30도

암기법은 조금 유치하고 가벼워도 기억에 오래 남으면 그만이다. 내가 실제로 사용했던 암기법을 소개한다. 암기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나 장면을 만들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방사선사 국가시험은 대부분의 응시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한다. 그래도 시험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신이 해온 공부를 믿었으면 한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평소에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괜한 업보는 쌓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답을 바꾸지 말자. 처음 선택한 답을 수정해야 한다면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정답을 바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바꾸는 것이 좋다. 국가시험 준비는 길고 지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은 공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모의고사 점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답노트 한 페이지라도 다시 읽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공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격의 순간이 찾아온다.

AI가 강해질수록,
방사선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양한준
전 을지대학교 교수

오퍼레이터를 넘어 의료영상 워크플로
설계자로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의료영상 현장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재구성, 자동 포지셔닝, 병변 검출 보조, 선량 최적화까지 AI는 검사실의 흐름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허가한 AI 기반 의료기기는 누적 1,451건에 이르고, 그중 약 76%가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료영상은 AI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들어온 임상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AI가 이렇게까지 잘 하면, 앞으로 방사선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AI 시대에 방사선사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증명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기술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계적 조작과 반복 업무는 AI가 더 빠르고, 더 일정하게, 더 피곤함 없이 수행합니다. 만약 방사선사의 역할을 단지 장비를 작동시키는 수준에 묶어 둔다면, 우리의 전문성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방사선

사는 이제 장비의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의료영상 워크플로를 설계하는 전문가로 올라서야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찍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같은 검사라도 환자의 상태, 임상 목적, 시간 제약, 방사선 피폭, 영상 품질의 균형은 늘 다릅니다.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할지, 어떤 AI 기능을 적용할지, 어디까지 자동화에 맡기고 어디서 사람이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도 2026년 이후 영상의학 AI의 초점이 단순 판독 보조를 넘어 워크플로 최적화, 품질 향상, 효율 개선, 표준화된 통합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즉, 미래의 경쟁력은 손기술만이 아니라 설계 능력에 있습니다. 검사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자 안전과 임상 목적, 장비 성능과 AI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능력, 그것이 앞으로 방사선사의 수준을 가를 것입니다. AI는 우리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는 답을 잘 찾지만,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는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이 환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상 정보는 무엇인가?”, “이 검사에서 선량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가?”, “속도와 해상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임상과 영상, 환자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리더는 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방사선사입니다.

둘째는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는 편리하지만,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문성은 사라집니다. AI는 오류를 낼 수 있고, 예외 상황에 취약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럴듯한 결과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방사선 물리학, 영상학에 대한 탄탄한 이해 없이는 AI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 시대일수록 기본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90%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마지막 10%의 신뢰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검사실에서 환자가 마주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 폐소공포로 숨을 고르는 환자, 설명 한마디에 안정을 찾

는 소아 환자 앞에서 진짜 의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AI는 영상을 정리할 수 있지만, 환자의 불안을 다독일 수는 없습니다. 기계는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신뢰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문성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환자 중심 가치로 번역하는 능력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방사선사를 약화시키는 시대 아닙니다. 오히려 방사선사를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장비를 다루는 사람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검사실의 흐름을 설계하고 환자 경험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로 진화할 것인가. 선택은 분명합니다.

“AI가 강해질수록, 방사선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판단하고, 더 따뜻하게 환자를 대해야 합니다. 미래는 AI를 잘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AI를 임상적 가치로 바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바로 우리 방사선사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보건의료인의 생명과 존엄도 지켜야 한다.

사망사건 앞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보건의료인이 해야 할 일



정봉재
가야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

지난 6월 말 모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출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유족지원단은 고인의 죽음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근무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병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관계 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단정적으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증언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우리 의료현장의 노동환경과 조직문화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에서 정작 의료인의 생명과 존엄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다.

의료현장은 강한 위계와 업무 분업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선배의 교육과 관리자의 지시는 환자 안전과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위계가 통제로 변하고, 교육이 폭언과 모욕으로 변하며, 업무지시가 부당한 압박으로 변하는 순간 조직은 사람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간이 된다. 특히 “병원은 원래 힘들다”, “신입 때는 다 그렇게 배운다”, “선배가 시키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관행은 더 이상 정당화되어

서는 안 된다. 힘든 업무와 정당한 업무지시를 감내하는 것과 폭언·모욕·따돌림·부당한 업무지시를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제 의료계가 바뀌어야 할 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선언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자체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회원 노동권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 회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상시적인 노동권 상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근로계약 위반, 폭언·폭행,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경험한 회원이 병원 내부에만 문제를 제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협회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노무·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상담부터 신고와 분쟁조정까지 지원해야 한다.

둘째, **방사선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 규모와 지역, 고용 형태, 근무 부서별로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신규·저연차 방사선사의 교육과 업무 부담, 초과근무, 휴게시간, 연차 사용,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 법정 교육

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동료와 관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과의 협의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핵심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방사선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문직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권과 인격적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지속되기도 한다. 동료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괜히 끼어들지 말자"고 생각하거나, 후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도 "나도 그렇게 버텼다"고 넘긴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자세는 방관하지 않는 것, 기록하는 것,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부당한 지시와 폭언, 반복적인 업무 배제 등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로 함께해야 한다.

병원 역시 '자체조사'를 넘어 신뢰받는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대한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사를 실시했는지가 아니다. 조사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공정했는지,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병원은 고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적인 문제를 근거로 사건을 축소하기보다 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 업무량과 근무 형태는 적정했는지, 조직 내 갈등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관리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누가 잘못했는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조직이 이를 예방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는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까지 살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신규·저연차 보건의료인을 위한 독립적인 고충 상담과 정기적인 근무 환경 점검
- ✔ 병원 내부뿐 아니라 협회 등 외부를 통한 독립적인 신고 창구 마련
- ✔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업무분리·근무장소 변경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
- ✔ 괴롭힘을 방지한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 ✔ 익명 조직문화 조사를 통한 폭언·모욕·따돌림·과도한 업무지시 실태 점검
- ✔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시간·업무·근무형태의 일치 여부 점검
- ✔ 협회의 노무·법을 지원 확대
- ✔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감독 강화

방사선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애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한 병원의 개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방사선사 전체의 노동환경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건의료인 역시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이라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선배의 역할은 후배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며, 관리자의 역할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협회의 역할은 회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설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방사선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보건의료계가 답해야 한다.

다시는 어떤 보건의료인도 출근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약속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DK메디칼솔루션의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함께한 40년의 동행, 그리고 함께할 미래



김진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의료 영상진단기기 전문 기업 DK사옥에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 및 임원단이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자존심을 지켜온 DK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40년간 이어온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실에서 DK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향후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DK메디칼솔루션이 단순 영상 장비 공급을 넘어 첨단 의료기기 제조 및 AI-중입자 치료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이준혁 대표이사께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며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1986년 18명의 직원과 함께 '동강무역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DK메디칼솔루션은, 설립 초기 해외 선진 의료 장비를 국내에 수입 및 공급하며 영상의학 분야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단순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독립과 국산 의료기기 제조를 목표로 삼았으며, 1992년 제조 법인인 '동강의료기기(주)(현 DK메디칼시스템)'를 설립해 본격적인 국산 X-ray 장비 개발 및 생산에 뛰어들었다.

전국 단위의 지사와 서비스망을 확고히 다진 회사는 2004년 '동강메디칼시스템(주)'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기술적 시야를 넓혔고, 2010년에는 부설 연구소를 세워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프리미엄 디지털 X-ray 브랜드 '이노비전(INNOVISION)'을 탄생시켰다. 과거의 필름 방식을 끝내고 디지털 혁명을 이끈 이노비전은 뛰어난 품질로 우수디자인에 선정되었으며, 십수년간 국내 디지털 X-ray 시장의 정상을 지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브랜드 강화를 위

해 2013년 현재의 'DK메디칼솔루션'과 'DK메디칼시스템'으로 사명을 최종 변경했다.

현재 DK는 300여 명 규모의 튼튼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필립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리더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CT, MRI, 초음파 장비까지 폭넓게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영상의학 total solution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장비에 접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운영 중인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첨단 방사선 치료 분야로까지 의료 영토를 확장하며 대한민국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미래에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덧붙였다.

현재 DK는 의료 기기 제조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최첨단 치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협력해 개발 중인 Med-LM 기반 생성형 AI



의료기관 디지털 혁신 솔루션과 KIMES에서 새롭게 공개되었던, AI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영상진단 장비 'Innovation ProX'에는 흉부 X선 영상에서 대동맥 크기를 측정하여,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를 이용한 기능들이 장비에 많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말로 향후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연세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연이어 도입되며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Heavy Ion Therapy System)의 성공적인 국내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나라가 접어든 만큼,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고령환자의 경우, 집에서 검사와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재택 진료와 검사가 활성화되려면, 휴대가 가능한 검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DK 이준혁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4월 돌봄 법이 실시된 만큼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휴대용 검사 장비의 활용 방

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양측은 이러한 첨단 신기술과 AI 솔루션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영상의학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발전 방향과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병원 행정 및 사업 모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어온 DK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래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한방사선사협회 소속 방사선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DK의 기술력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사옥 방문을 시작으로, 우수한 장비의 개발과 임상 현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병원과 두 바퀴 사이

자전거에 조금 많이 진심인 어느 방사선사의 이야기

조정훈

아주대학교병원

병원에서는 방사선사,
퇴근 후에는 또 다른 내가 된다.

나의 하루는 달력의 평일과 주말로 나뉘지 않는다.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방사선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쉬는 주말이 나에게서는 근무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일 낮이 나만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병원에서는 MRI 파트에서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늘 긴장과 집중의 연속이다. 환자를 확인하고 검사를 준비하며,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장비와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같은 검사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직업인 만큼 환자 안전과 정확한 검사, 그리고 책임감을 놓칠 수 없다.

특히 검사 자체에 대한 긴장이나 낮선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자주 마주하다 보니,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배려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면, 또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시간에 찾아온 휴무가 시작되면 나에게서는 또 다른 시간이 열린다.

근무복을 벗고 사이클 저지로 갈아입고 헬멧을 쓰는 순간이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남들이 쉬는 주말에 항상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근무표를 확인하며 라이딩할 수 있는 날을 찾고, 때로는 평일 한낮의 한적한 도로를 달린다. 일정이 허락하면 자전거를 챙겨 조금 더 먼 곳으로 떠나 달리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떠나 낯선 나라에서 번호표를 달고 자전거 대회에 출발선에 서 있기도 했다.

물론 자전거 선수는 아니다. 그저 자전거에 조금 많이 진심인 방사선사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자전거에 진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로드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직장 동료의 권유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타기 시작했지만, 막상 처음 자전거에 올라 동료를 따라가 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점점 거리가 벌어졌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벽처럼 다가왔다.

처음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기보다는, 다음에는 조금 더 잘 따라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꾸준히 안장 위에 오르고, 조금 더 먼 거리를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동료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전거 그 자체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조차 힘들었던 자전거가, 그렇게 조금씩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는 횟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는 거리도 길어졌다. 처음에는 탄천을 따라 한강까지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꽤 큰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도에서 더 먼 목적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가보고 싶어졌고,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리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가 궁금해졌다. 자세와 페달링, 코너링, 여러 사람과 함께 달릴 때의 주행 방법과 같은, '로드 사이클'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이클 아카데미(올공 사이클 아카데미)에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취미로 타는 자전거를 굳이 배워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과 제대로 탈 줄 아는 것은 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자전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에서, 배우고 목표를 세우며 즐기는 취미로 조금씩 바뀌어 갔다. 제대로 타는 법을 배우고 나니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에 눈이 갔다. 가까운 자전거길을 넘어 더 긴 거리를 달려보고 싶었고, 그렇게 나의 자전거 생활은 국토종주와 '그란폰도'라고 불리는 대회 라이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더 멀리, 더 새로운 길로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더 긴 거리와 새로운 길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딩으로는 일출과 함께 동해 정동진에서 출발해서 일몰 전까지 서해 정서진 도착을 목표로 달리는 장거리 라이딩에 도전했었다. 긴 시간 페달을 밟으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목표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지금도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의 길도 달려보기 시작했다. 가까운 일본으로 내 자전거를 챙겨, 해발 3,000m가 넘는 후지산, 탁 트인 절경을 볼 수 있는 구마모토의 아소산을 오르는 등 익숙한 자전거길과는 다른 풍경과 도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자전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여행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자동차로 이동했다면 금세 지나쳤을 길과 마을을 천천히 달리고, 그곳의 바람과 경사까지 직접 느끼는 경험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자전거는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가는 취미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또 어떤 길을 달려볼지 기대하게 만들었다.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자전거 생활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아내다.

자전거는 이제 나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즐기는 취미가 되었다. 휴무가 겹치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날씨를 확인하고, 어디를 달릴지 코스를 찾아본다. 가까운 길을 가볍게 달리는 날도 있고, 하루를 온전히 라이딩에 쓰기도 한다.

같은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항상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니다. 서로 잘하는 구간도 다르고 컨디션이 다른 날도 있다. 업힐을 오를 때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기다려 주기도 하고, 힘든 날에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 달리기도 한다. 때로는 코스나 페이스를 두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라이딩이 끝난 뒤 그날 있었던 일을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 서로다.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여행의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여행지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달릴 만한 길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아내가 참가하는 해외 대회를 계기로 함께 자전거를 챙겨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자전거 덕분에 평소라면 가보지 않았을 곳을 찾고, 새로운 풍경을 함께 경험하는 일이 우리 부부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시작한 자전거였다. 따라가는



것조차 벅찼던 때를 지나 조금 더 잘 타고 싶어 배우기 시작했고, 대회와 같은 긴 거리를 달리고, 해외의 낯선 길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많은 순간을 이제는 아내와 함께 하고 있다.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모습과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꽤 다른 삶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둘 다 소중한 일상이다.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책임감과 보람을 준다면, 자전거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활력을 준다. 근무복을 입고

환자를 마주하는 시간도, 헬멧을 쓰고 아내와 함께 페달을 밟는 시간도 결국 나를 이루는 하나의 삶이다.

병원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쳐갈 때도 있지만, 자전거 위에서는 반복되는 페달링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어쩌면 '이중생활'이라고 부르기에는 두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방사선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계속 달리고 싶다. 그 곁에 아내가 늘 함께였으면 좋겠다.

방사선사의 이중생활: 요리조리 방사선사

흑백 영상 너머, 소비농블랑과 조개술집



박성모

건국대학교병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당신은 아마도 바다와 빛을 좋아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바다를 비추는 윤슬 같은 빛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다루는 빛은 조금 다릅니다. 온기도, 색채도 없는 '방사선'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방사선사의 하루는 차가운 납 방어벽 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굳이 온기 없는 장비와 흑백 세상에 머무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갯벌을 닦은 이 직업이 좋습니다. 모니터 속 흑백의 영상 안에는 한 사람의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희

미한 음영 사이로 숨어있는 아픔을 찾아내는 일은, 갯벌 속에 숨은 조개를 찾는 일만큼이나 세심하고 승고한 작업입니다.

퇴근길, 코끝에 뱀 정전기 섞인 먼지와 차가운 장비의 내음을 털어내며 문을 나섭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을 위한 '동화(同化)의 시간'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익숙한 전주가 시작되면, 좁은 주방은 순식간에 에메랄드 빛 제주의 바다로 변합니다.



마음의 아티팩트(Artifact)를 제거하는 해감

가장 먼저 조개를 소금물에 담급니다. 방사선사로 살다 보면 마음속에 '긴장'이라는 노이즈와 아티팩트가 서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음악 속에 잠가 두고 조개가 모래를 뱉어내듯, 저도 오늘 피로를 뱉어냅니다.

캄캄한 해감의 시간, 그것은 완벽한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절실한 기다림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향의 레이어를 쌓는 베이스 조리

팬을 달구고 올리브유를 두릅니다. 편으로 썬 마늘을 넉넉히 넣고 황금빛이 돌 때까지 약 불로 볶습니다. 여기에 페페론치노나 청양고추를 투하합니다. 매콤한 향이 올라오며 주방의 공기가 바뀌는 순간, 병원의 공기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집니다. 마늘향이 기름에 충분히 베어 들면, 깨끗이 씻은 조개들을 쏟아붓습니다. 냄비 바닥에 조개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파도가 자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 같습니다.



소비농블랑의 사치와 증발의 마학

이제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허락된 15,000원짜리 소비농블랑을 꺼냅니다. 코르크를 열 때 나는 경쾌한 소리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같습니다. 조개가 잠길 듯 말 듯 술을 자작하게 붓습니다. 불을 세게 키워 알코올을 날려 보냅니다. 술기운과 함께 정체된 감정들이 증발하면, 냄비 안에는 바다의 진액만이 남습니다.



감칠맛의 완성, 버터 한 조각

조개들이 하나 둘 "탁, 탁"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흑백 영상 속에서 병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이때 차가운 버터 한 조각을 넣습니다. 굳어 있던 마음이 노랗게 녹아내리며 국물에 풍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미나리나 썩갓을 얹어 초록의 생기를 더하면, 제 주방은 완벽한 바다가 됩니다.



바다와 하나 되는 시간

잔에 남은 소비농블랑을 한 모금 마시면, 시트러스한 향이 제주 함덕의 바람처럼 콧등을 스칩니다. 창밖의 도시 소음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노래 속의 파도 소리와 냄비 속의 보글거리는 소리뿐입니다. 흑백의 영상을 보며 긴장하던 눈을 감고, 온전히 바다의 맛에 몸을 맡깁니다.

방사선사의 삶은 어쩌면 이 조개술집의 국물과 같습니다. 화려한 메인 요리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밝혀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깊고 진한 밑바탕 말입니다.

오늘 내가 포착한 찰나의 흑백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음을 되새깁니다. 비록 우리는 차디찬 방호벽 뒤에 서 있지만, 우리 손끝에서 시작된 그 빛이 결국 누군가를 푸른 바다로 돌려보내는 가장 정직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향기, 최성원의 목소리, 그리고 잔 속에 담긴 작은 사치. 이것으로 충분히 오늘 하루는 완벽합니다.

에필로그

바다를 좋아한다는 건 곤사한 핏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잠시 멈추고 싶을 뿐이니까요.

당장 떠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당신이 끓여낸 조개술집은 바다로 향하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진짜 바다로 가기 전, 냄비 속 작은 바다를 마주하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가만히 녹여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오늘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바다 한 봉지' 사 보시겠어요?

故 김광철 선생님 영전에 삼가 올립니다

한평생 방사선사의 길을 걸으며 후배들의 등불이 되어주신 스승님을 기리며



최남길

전)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

많은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故 김광철 님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40여 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흰칠하게 큰 키와 듬직하고 커다란 체구, 그리고 너무나도 온화하고 따뜻했던 인상, 고인은 마치 추운 겨울 날 따스한 햇살을 품고 서 있는 커다란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면발치에서 고인의 그 커다란 윤곽만 보고도 주변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이 오시는구나!' 그 듬직한 체구에서 풍겨 나오는 특유의 인자함은 주변의 어수선했던 공기마저 단숨에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우람하고 당당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바라본 고인의 눈빛은 언제나 한없이 순박하고 인자했습니다.



광주광역시회 1대 회장 故 김광철 회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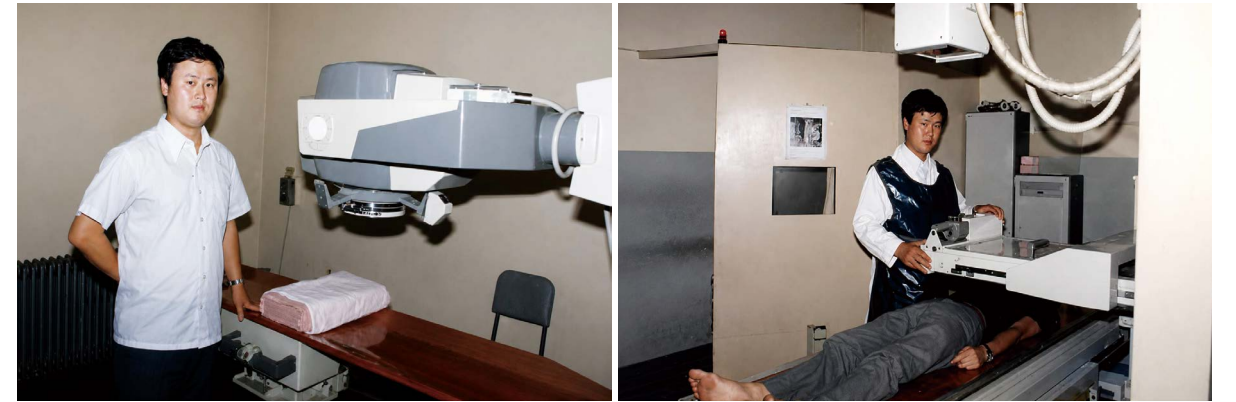
엑스선사(73년도 방사선사 개칭) 국가고시 1회, 그리고 대한민국 방사선 의료의 한 시대를 걸어오신 분

고인은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초기 역사를 온몸으로 개척하고, '엑스선사(73년도 방사선사 개칭) 국가고시 1회(1965년도 4월 29일)'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방사선 기술이 아직 낯설고 생소하던 시절, 맨땅에 헤딩하듯 학문을 익히고 현장을 일구었던 그 선구자적인 길, '방사선사 원년 멤버'라는 무게감 앞에서도 그분은 결코 자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긴 채, 당신이 먼저 걸어간 길을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등불을 밝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고인은 단순한 조직의 관리자나 상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저를 비롯하여 함께 일하던 수많은 후배들에게 언제나 '참된 교육자'였습니다. 당시 의료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자칫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서글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단 한 번도 후배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서툰고 어설픈 후배가 실수를 저지를 때면, 커다란 손으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며,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며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장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거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칠 때, 고인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함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술만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상사가 아니라, 방사선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 윤리와 인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스승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질문을 던



故 김광철 회장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질 때면,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커다란 체구를 낮추어 후배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시던 그 다정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인의 밑에서 일을 배운 수많은 후배들은 의로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인은 영원히 '직장 상사'라는 딱딱한 명칭보다는 '스승님'이라는 가슴 먹먹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평생 한 길을 걸으며 지켜낸 직업정신

고인은 당신의 직업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걸은 방사선사의 길에 대한 애정과 집념은 참으로 깊고 숭고했습니다. 그 열정을 증명하듯, 고인은 해방 직후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에서 쓰이던 X-Ray 튜브(크룩스관, 정류관)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모아두셨습니다. 의료 기자재가 귀하고 기술이 척박했던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손때와 땀방울이 배어 있는 그 수집품들은, 단순한 의료장비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 의료발전의 역사가 그대로 숨 쉬고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었습니다. 고인이 평생에 걸쳐 정성껏 지키고 모아두셨던 이 유산들은 오늘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박물관에 보관·전시되어 한국 의료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열정과 집념이 후학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육의 장이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박물관에 고이 보존된 그 X-Ray

튜브들을 바라볼 때마다, 평생을 한 길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하셨던 고인의 거룩한 직업정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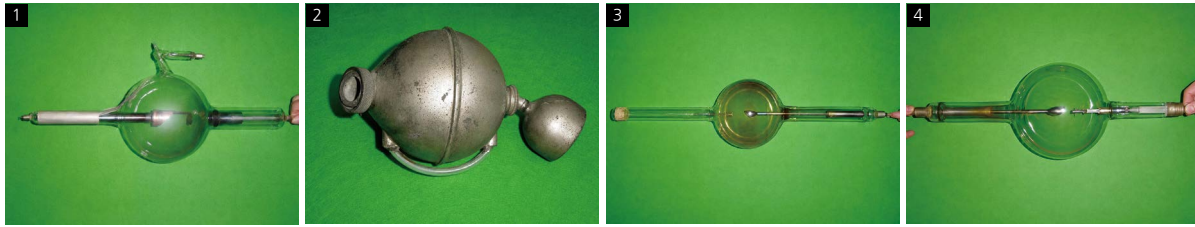
술과 노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던 선생님

고인은 술과 노래, 그리고 사람을 향한 무한한 정(情)이 넘쳐나신 분이었습니다. 고인의 삶을 떠올릴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술과 '노래,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유달리 술을 좋아하셨던 고인은 술 자체의 맛보다도,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정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고인은 특히,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고인이 술자리가 무르익고 기분이 좋아지면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바로 가수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칠 때〉였습니다.

"외로울 때면 밤하늘을 바라보고 / 슬퍼질 때면 바닷가를 걸었네..."

고인 특유의 깊은 울림으로 흘러나오던 그 노래는 술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곤 했습니다.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그분의 낭만과 온기, 그리고 해맑은 너털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모든 근심과 시름을 잊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친구와 후배를 위해서는 늘 자신의 잔을 먼저 내어 주셨던 분



1 가스관구(공기냉각식), 1910년 2 수냉식 열전자 관구 물통 3 심부치료용 열전자관구(자연냉각식), 1915년 4 열전자관구(공기냉각식), 1915년

고인에게 친구와 후배란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남에게 되받기보다는 내가 한 잔 더 사주는 것을 기쁨으로 아꼈던 분. 고인의 호주머니는 늘 가벼웠을지언정,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온기로 풍족했습니다.

84세의 화려한 삶, 독신의 쓸쓸함 뒤에 남겨진 빛

고인은 84세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걸어가는 삶의 길목에서 때로는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왔을지, 이제야 감히 가슴으로 헤아려 봅니다. 외로울 때면 밤하늘을 바라보고 슬퍼질 때면 바닷가를 걸었다는 그 노래 가사처럼, 어쩌면 그 노래는 고인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나지막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4년의 삶, 홀로 걸어온 길 위에 남겨진 따뜻한 빛

하지만 고인은 결코 외로움에 함몰되거나 삶을 쓸쓸하게 놓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인에게에는 가정이 없는 대신 함께 일하는 일터가 가정이었고, 가르치는 후배들이 자식이었으며, 늘 곁을 지켜주는 술동무와 친구들이 가족이었습니다. 독신의 삶을 택하셨기에 어쩌면 더 사심 없이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으셨고, 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과 학문에 순정을 바치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인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하고 기품 있게 걸어간 모습은 참으로 고결했습니다. 84년이라는 결코 짧은 생의 소풍을 마치고, 고인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 높은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환칠한 키로 멀리서도 환하게 빛나던 저의 스승이자 선배님! 당신은 국가고시 1회 방사선사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좋아하시던 술과 정겨운 노래,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뒤로한 채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비록 그 거대하고 온화했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한국 의료 역사에 남기신 숭고한 업적과 우리 가슴속에 심어주신 따뜻한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서툴렀던 저를 따뜻하게 감싸안아 주셨던 그 커다란 손길, 술잔을 건네며 부르시던 그 노랫소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학술대회를 마치고... 1982.09

故 김광철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올립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소서.

전) 동신대학교 교수 *최남길 올림*

INTERNATIONAL CONFERENCE NOTE

현장의 질문을 안고, 홍콩의 국제무대에 서다

2025년 경기도회 학술대회 대상 수상에서 HKRRTC 2026 초청 발표까지

박호성

아주대학교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 미디어혁신이사



HKRRTC 2026 행사장에서 윤일규 회장, 엄재길 분회장 등 한국 참가자들과 함께

대상이 열어 준 국제무대

이번 홍콩행의 출발점은 간 MRI 검사실에서 품었던 작은 질문이었다. 프리모비스트를 이용한 동맥기 검사에서 환자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인공물을 줄이기 위해, 검사 전 호흡 교육과 검사 중 숨 참기 보조 신호의 효과를 비교해 논문으로 정리했다. 연구 결과 두 방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영상의 질이 가장 안정적으로 향상되었다. 화려한 기술보다 환자가 검사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사선사의 설명과 안내가 정확한 영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2025년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았고, 그 부상으로

홍콩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한 번의 수상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길까지 열어주신 경기도회의 배려가 참 고마웠다. 제게 이번 기회는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우리 임상 현장의 고민도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나눌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건네받은 일이었다.

미디어혁신이사로 함께한 특별한 책임

이번 참석은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대한방사선사협회 미디어혁신이사 자격으로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고 영광스러웠다. 개막식 자리와 좌장석의 명패에 적힌 'Dr. Ho Sung Park, Director of Media & Innovation, KRTA'라는 문구를 보며 자부심과 함께 책임도 느꼈다. 국제무대에서의 말과 태도가 협회와 대한민국 방사선사를 보여주는 작은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었다.

홍콩 현장에는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윤일규 회장과 임원진, 경기도회 엄재길 분회장과 임원진도 함께했다. 낯선 행사장에서 서로의 일정과 발표를 응원해 주는 동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되었다. 행사장 표지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은 개인의 참가를 넘어, 우리나라 방사선사들이 진단과 치료의 경계를 잇고 함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의

미로 오래 남았다.

사람과 온기가 가득했던 학술대회

2026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홍콩 홍콩 케리호텔에서 열린 HKRRTC 2026과 제13회 Asia Radiotherapy Symposium에는 여러 국가의 방사선사와 방사선치료사가 모였다. 발표장 안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임상 경험을 진지하게 나누었고, 세션 사이 로비에서는 서로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남기며 교류를 이어갔다. 학술적 열정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함께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였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아 주고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준 홍콩방사선사협회 Ng Tat Ming 회장과 Alex Leung 국제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두 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낯선 국제학술대회가 한층 편안하게 다가왔다. 좋은 국제 교류는 연구와 제도를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좌장과 발표, 두 역할로 배운 것

첫날에는 Lawrence Yip과 함께 '진단 선별검사 및 전문영상의 발전'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다른 연구자의 준비와 시간을 존중하며 세션의 흐름을 이어가는 일은 발표와는 또 다른 책임이었다. 다양한 발표를 가까이에서 듣고 연결하면서, 국제학술대회는 자신의 연구를 알리는 자리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하는 자리임을 배웠다.

둘째 날에는 'Advanced Strategies for Gd-EOB-DTPA (Primovist) Dynamic Arterial Phase of Liver MRI'를 주제로 초청 발표를 진행했다. 영어로 논문의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긴장도 있었지만, 검사실에서 시작된 질문이 논문이 되고 국내 학술대회 대상을 거쳐 국제무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다. 발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했다. 방사선사의 세심한 호흡교육과 안내 역시 영상의



1 초청 발표 현장

2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빅토리아 피크에서 함께한 기념사진

질을 높이는 전문기술이며, 결국 좋은 영상은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였다.

받은 기회를 다시 현장으로

발표를 마친 뒤 받은 감사장과 빅토리아 피크에서 함께 바라본 홍콩의 야경도 소중했지만,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기회를 열어주신 경기도회, 여정을 함께해주신 윤일규 회장과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임원진, 임재길 분 회장과 경기도회 임원진, 따뜻하게 환대해 준 Ng Tat Ming 회장과 Alex Leung 국제이사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미디어혁신이사로서 이번 경험을 회원들과 나누고, 더 많은 방사선사가 현장의 질문을 연구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받은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연구 자료실 개설

안녕하십니까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연구원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정책연구 활성화 및 방사선사 정책의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 자료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자료실을 통해 방사선사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원 여러분께서 수행하신 관련 연구자료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 정책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SNS 팔로우하고 선물받자!

팔로우 이벤트

방사선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식 페이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좋아요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방사선사의 이야기에
더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요♡"

이벤트 참여 방법

STEP 01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팔로우하기

STEP 02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 댓글 남기기

STEP 03



추첨으로
선물 받기!



INSTAGRAM
@the_krta_official



FACEBOOK
대한방사선사협회



추첨을 통한 상품 제공은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 컷 안전법

임상사례로 배우는 환자안전과 법률

제1화 MRI 산소통 사고

- 보이지 않는 자기장, 눈앞의 위험 -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10월,
MRI 검사 중 산소통이
자석에 이끌려 환자에게
부딪혀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사고 당시 상황

- 08:30 MRI 검사 예약 및 내원
- 09:45 검사 전 준비
- 09:50 산소통과 함께 MRI실 입장
- 13:53 MRI 검사 시작
- 13:54 산소통이 자석에 이끌려
환자 쪽으로 이동
- 이후 환자 상해 및 응급처치



3 핵심 원인

- ✓ 강한 자기장에 의한 산소통 끌림
- ✓ MRI실 금속 물품 반입 관리 미흡



4 관련 법률·법령

- ✓ **의료법** 제37조(안전관리 의무)
- ✓ **환자안전법** 제8조(환자안전활동)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안전조치 의무)

안전 수칙 미준수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진과 기관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금속 물품 반입 금지 (예시)



⚠ 위와 같은 금속 물품은 MRI실에 반입 금지입니다.

6 방사선사의 역할

- ✓ 검사 전 금속 물품 확인
- ✓ 환자 상태 및 산소 공급 여부 확인
- ✓ 안전 수칙 안내 및 현장 통제
- ✓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7 체크리스트

- ✓ 금속 물품 반입 금지 안내
- ✓ 문진(보조기기, 금속 포함) 확인
- ✓ 검사실 출입 전 최종 확인
- ✓ 이상 상황 시 즉시 중지 및 보고



8 핵심 메시지

“MRI의 자기장은 보이지 않지만,
사고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전 확인



안전한 준비



신속 대응



기록 관리



작은 확인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
방사선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407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퀴즈 응모 하러가기

응모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1월 13일(금)
참여 대상 연회비 완납 방사선사 회원(* 과년도 회비 완납자)
당첨자 안내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 예정되며, 2026년 11월 20일(금) 이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등 에어팟/갤럭시버즈 (1명) 2등 신세계 100,000원 상품권 (3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명)

Quiz 1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올해 창립 몇 주년일까요?

Quiz 2 '제23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2회차)'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Quiz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법정 정기검사 주기는 언제일까요?

방사협보 제406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평소 방사선사협보를 관심 있게 보면서 퀴즈 이벤트에도 가끔 참여했는데, 이렇게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놀랍고 기쁩니다. '설마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당첨되고 보니 기분이 참 특별하네요. 좋은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고
뜻밖의 큰 행운까지 선물해 주신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주는 방사선사협보와 다양한 이벤트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행운처럼 모든 방사선사 회원분들에게도 좋은
일과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김*현 회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택에서 17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방사선사로서의 삶에 늘 자부심을 느끼며 걸어왔는데, 협회에서 전해주시는 뜻깊은 선물
덕분에 더욱 특별하고 감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회원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협회를 이끌어 주시는 협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방사선사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기사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방사선사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협회의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안 회원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THE 61ST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10.31(토)
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주관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